

서울아산병원

VOL.598

2019. 2. 1



따뜻한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한식당 '가람'

편안함 속에서 최고의 만족을! 마음을 위로해주는 한식당 가람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위치 : 별관 1층
영업 시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
 ※ 휴무일 : 2월 5일(화), 2월 6일(수), 2월 16일(토), 2월 23일(토)
추천 메뉴 : 육개장(7,500원), 사골우거지탕(8,000원), 한우차돌단장찌개(8,500원), 불낙뚥배기(10,000원), 영양갈비탕(12,000원), 해물파전(12,000원)
계절 메뉴 : 한우소고기무국(10,000원)
문의 : 02-3010-2421

제596호 독자엽서 정답



제596호 독자엽서는 총 212명이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좋았던 코너로는 66명(31%)이 뽑은 '문화·생활정보·반려동물과 함께 나는 겨울'이 선정되었습니다.

병원보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 | | | |
|---|--|---|
| 스카이라운지 에메랄드 코스 식사권(4인)
이명희(진단검사의학팀) | 원내 식당 이용권
박미현(수술간호팀)
조천웅(특수검사팀) | 수건 세트
김지윤(감염관리팀)
이민지(외과간호1팀) |
| CJ 통합 상품권
김상훈(시설팀) | 스타벅스 e-기프트카드
김민아(임상연구심의위원회) | 이서희(진단검사의학팀) |
| 동관화원 이용권
구효진(임상시험센터) | 김선희(수술간호팀)
김윤형(어린이병원간호팀) | 임춘자(의료정보관리팀)
정은정(약제팀) |
| | | 베스트 독자엽서
허소영(건진운영팀) |

※ 이번 독자엽서는 건진운영팀 강지혜 주임이 추천했습니다.
 ※ 당첨된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동관 6층)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좋은 의견이나 내용을 보내주신 '베스트 독자엽서'에는 스카이라운지 식사권을 드립니다.

독자엽서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이 4군데 있습니다. 3개 이상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성명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가장 좋았던 기사 또는 코너는?

독자의 목소리 소개하고 싶은 직원,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감동적인 이야기, 소개하고 싶은 영화,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알리고 싶은 우리 부서 소식 등을 보내주세요.

1월 27일 동·서관 회전문 앞에 내원객 및 교통안내 직원의 난방 환경개선을 위해 캐노피 천정형 히터가 설치됐다. 사진은 동관에 설치된 캐노피 천정형 히터 밑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내원객들의 모습.

- **제출방법 :** 동·서·신관 직원 식당 내 배포함 또는 홍보팀 문서수발함
- **마감 :** 2019년 2월 15일(금) ● **발표 :** 제600호(2019년 3월 1일 발간)
- 독자엽서에 퀴즈 정답 및 좋은 의견을 적어 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1인 1매만 응모 가능합니다.)



동물들과 즐기는 병원 놀이터 '힐링정글' 신관 1층 어린이병원 외래 입구. 환아들이 곰, 토끼, 기린 등 동물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디지털 벽 앞에 웅기웅기 모여 놓고 있다. 이곳은 아이들 움직임에 반응하는 모션센서를 이용해 놀이와 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디지털 플레이 '힐링정글'.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동작과 인지놀이 참여를 유도하는 디지털 놀이터 '힐링정글'에서 아이들은 "동물들이 귀여워요" "팡팡 터져서 재미있어요" "정글에 온 것처럼 신나요"라며 즐거워했다. 사진은 힐링정글에서 놀고 있는 환아들의 모습. (관련기사 5면)

- | | |
|--------------------|------------------------|
| 02 NEWS | 지난해 319만 명 환자 우리 병원 찾아 |
| 08 사람 & 이야기 | 직원들 덕분에 최고 평가 받아 |
| 14 사랑시·행복구·동행동 AMC | 어둠 속에 빛이 보일 때 |
| 22 문화·생활정보 | 열량 높은 설음식 알고 먹자 |



지난해 319만 명 환자 우리 병원 찾아 2017년 대비 총 환자 3.5% · 외국인 환자 23.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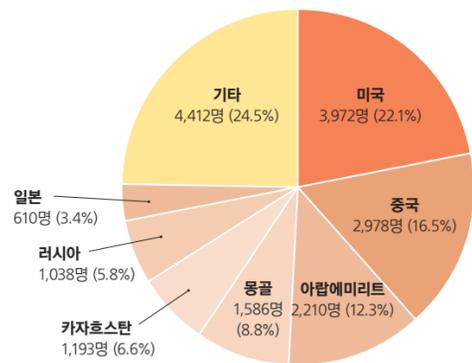
2018년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319만 3,336명으로 2017년보다 3.5% 증가했다. 2015년 288만 8,690명을 기록한 이래 2016년 305만 4,905명, 2017년 308만 6,516명에 이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환자 유형별로는 ▲외래환자 304만 7,946명 ▲입원환자 14만 5,390명이었다. 수술건수는 6만 5,599건이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외래환자는 10만 4,662명, 입원환자는 2,158명, 수술건수는 1,808건 증가했다(표). 외래환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33만 7,390명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 82만 8,890명 ▲충북 10만 7,394명 ▲강원 10만 1,621명 ▲경북 9만 3,873명 ▲충남 8만 6,999명 ▲경남 8만 4,57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서울시 구별 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병원 인근 지역에서 온 환자들이 많았다. ▲송파구가 42만 12명으로 서울 전체의 31.4%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강동구 21만 5,751명 ▲광진구 12만 4,685명 ▲강남구 10만 8,553명 등 순이었다. 2018년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 수는 1만 7,999명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로 2017년 1만 4,586명과 비교해 23.4%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미국 3,972명 ▲중국 2,978명 ▲아랍에미리트 2,210명 ▲몽골 1,586명 ▲카자흐스탄 1,193명 ▲러시아 1,038명 ▲일본 61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그래프).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환자는 지난해 1,516명에 비해 46%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국제진료센터는 우리 병원의 수술 및 치료 성공 사례가 유튜브를 통해 중동국가에 널리 알려지고, 할랄음식 메뉴 제공, 기도실 마련, 아랍어 전문 통역사 고용, 아랍어 복약설명문 제공, 중등환자를 위한 컨시어지서비스(공항픽업, 호텔예약, 시내 교통 차량지원, 비자연장 서비스 제공) 등 치료환경이 개선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우리 병원에서 치료 받은 간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진료상담 및 사후관리서비스를 실시하며 우리 병원의 우수성을 알린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인 환자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외래환자 1만 5,909명, 입원환자 741명, 건강검진 수진자 1,349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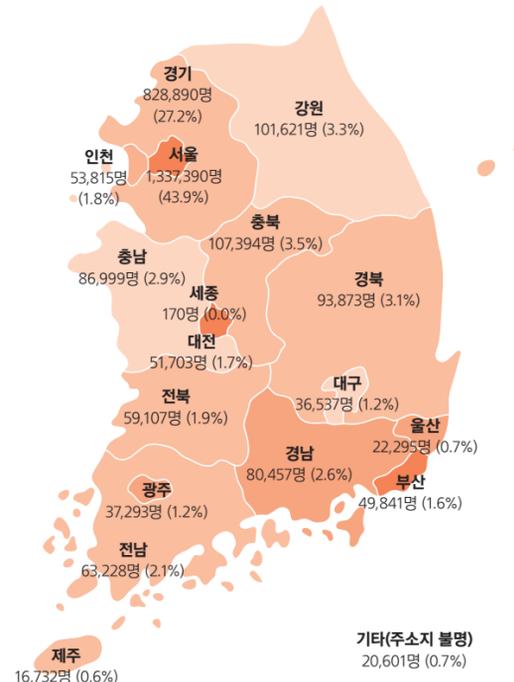
[표] 2013~2018년 환자 수 및 수술건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외래환자 (연인원)	2,768,850명	2,836,400명	2,755,724명	2,915,191명	2,943,284명	3,047,946명
입원환자 (실인원)	126,798명	130,340명	132,966명	139,714명	143,232명	145,390명
총 환자	2,895,648명	2,966,740명	2,888,690명	3,054,905명	3,086,516명	3,193,336명
수술건수	58,472건	59,947건	60,999건	63,118건	63,791건	65,599건

[그래프] 2018년 국가별 외국인 환자 분포



[그림] 2018년 지역별 외래환자 분포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에 3D프린팅 모형 활용



소아심장외과 윤태진 교수, 영상의학과 양동현 부교수, 융합의학과 김남국 부교수팀은 실제 심장과 똑같은 크기와 구조로 만든 3D프린팅 모형을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의 수술 시뮬레이션에 활용해 수술 계획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를 돕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 3D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술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최근 선정됐다. 선천성 심장기형은 두 가지 이상의 심장질환이 중복되어 있거나 아주 작은 심장으로 인해 수술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환자의 검사 영상 자료를 이용해 심장모형과 질환 형태, 판막 위치 등

실제와 비슷한 3D모형을 설계할 수 있다. 이를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검토한 후 재료의 투명성, 색깔 및 실제 심장 질감과 비슷한 연성재료를 이용해 다양한 3D모형을 제작하면 외과 의료진이 수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수술 계획을 결정한 후 실제 수술에 들어가게 된다. 3D프린팅 심장기형 질환 수술 시뮬레이션은 2013년부터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개발해 활용해왔다. 지금까지는 국내 기술의 한계로 캐나다에 모형 제작을 의뢰해야 했고 제작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병원 내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정다면 소아심장기형 3D모형을 자체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환자 37명의 3D심장모형을 제작해 수술을 진행한 결과 수술 도중 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윤태진 교수는 "3D프린팅 심장기형 질환 수술 시뮬레이션 기술의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복잡한 심장기형을 가진 소아환자들의 수술 시 폭넓게 활용한다면 수술 결과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이해를 돕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폐 · 식도 질환 로봇수술 500례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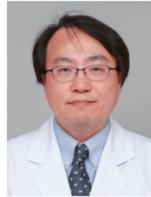


1월 14일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팀이 폐·식도 질환 일반 흉부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했다. 사진은 김 교수팀이 식도암 로봇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흉부외과 김용희 교수팀이 1월 14일 폐·식도 질환 일반 흉부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했다. 우리 병원 흉부외과는 2008년 로봇수술을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530건을 시행했다. 최근 3년간은 ▲2016년 79건 ▲2017년 102건 ▲2018년 106건을 시행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중 김 교수는 ▲식도암 346건 ▲중격동 종양 55건 ▲폐·식도 등 기

타 질환 99건으로 총 500건의 로봇수술을 집도했다. 이는 국내에서 시행한 일반 흉부 분야 로봇수술 건수 중 개인 통산 최다 수술 기록이다. 식도암 수술은 대표적인 고난도 수술로 꼽힌다. 흉부 및 복부 절개를 기본으로 하지만 간혹 경부 절개도 해야 할 정도로 수술 범위가 넓고 수술 시간도 최소 8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은 흉부외과와 위장관외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체 식도암 수술 환자의 60% 이상을 로봇수술로 시행하고 있다. 로봇의 안전성과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식도암 수술에 로봇을 이용하면 ▲수술 시간이 기존 수술 접근 방법에 비해 1시간 이상 절약되고 ▲시야 확대가 가능해 수술 정밀성이 높아지며 ▲최소 부위만 절개해 환자의 통증과 흉터가 감소하고 ▲폐렴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줄어들며 ▲회복이 매우 빨라진다. 김용희 교수는 "최근 다양한 일반 흉부 질환에 로봇수술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데, 식도 수술에서도 로봇수술이 표준화된 수술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다양한 적응증 확대를 통해 로봇수술이 일반 흉부 질환 환자의 치료 결과와 수술 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의료용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무한 생성 기술 개발



김남국 부교수

폐포 사이 간질 조직이 손상돼 점점 숨쉬기 어려워지는 폐질환의 조기 진단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의료 데이터가 부족해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융합의학과 김남국 부교수팀은 '펼린 노이즈'를 활용해 적은 수의 의료영상으로도 의료영상 데이터를

무한대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최근 개발했다. 펼린 노이즈는 자연 현상의 복잡계 이론을 기반으로 게임이나 영화에서 풀숲, 구름, 울퉁불퉁한 언덕을 자연스럽게 구현해내기 위해 무작위로 비슷한 컴퓨터 그래픽 화면을 계속 만들어내는 기법이다. 김 부교수팀은 펼린 노이즈 기법을 인공지능에 적용한 결과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진단 정확도가 약 90%로 기존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먼저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환자의 고해상도 컴퓨터단층촬영(HRCT) 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5가지의 병변 조직 패턴과 정상 조직 패턴 총 6가지의 조직 패턴 100개씩을 판독했다. 이후 김 부

교수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펼린 노이즈 데이터 증대 기법으로 무한대의 의료영상 데이터를 만들어낸 후 인공지능 기술에 학습시켰다. 그 결과 기존의 데이터 증대 기법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 대비 진단 정확도가 9% 정도 더 높은 약 90%로 나타났다. 또 고해상도 컴퓨터단층촬영 영상 속 폐 병변과 정상 부분을 구분해내는 영역 분할에서도 전문의와 비교해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기존 인공지능 기술과 비교해도 약 10%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부교수는 "의료용 인공지능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영상을 조금씩 변형시켜 학습시키는 기술은 존재했지만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없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연구를 진행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외에도 여러 상황적 제약으로 많은 양의 의료 영상 데이터를 얻기 힘들었던 질환에 펼린 노이즈 데이터 증대 기법을 활용하면 의료용 인공지능 기술의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최근 게재됐다.

상용현미경에 내시경 장착해 '살아있는 세포' 관찰



김준기 조교수

살아있는 세포를 상용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생물에서 조직을 채취한 뒤 세포를 관찰하는 기존 연구방식에서 더 나아가 질 병연구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이 앞으로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의공학연구소 김준기 조교수팀은 상용현미경과 결합 가능한 소동물용 미세내시경 시스템을 개발

해 장기 속 세포들의 미세한 변화를 현미경을 통해 실시간 관찰할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특수 제작한 직경 1mm 내외의 초소형내시경이 동물 몸의 미세 구멍을 통해 장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험 후 절개부위를 봉합하면 동물 회복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상용현미경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드는 고해상도 미세내시경과 영상장치를 매 실험마다 구축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 조교수팀은 살아있는 실험동물을 현미경의 재물대가 아닌 다른 넓은 공간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광학 모듈이라는 특수 장비를 고안했다. 상용현미경과 미세내시경 시스템 사이를 연결하는 이 모듈은 현미경으로 들어온 빛을 미세내시경 끝까지 전달하고, 미세내시경에 맺힌 동물의 체

내 이미지는 다시 현미경에 맞게 한다. 관찰 대상 배치 공간이 넓어진 덕분에 미세내시경이 결합된 대물렌즈가 0도에서 360도까지 회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소동물의 장기 내부를 수직, 수평, 사선 등 다양한 방향에서 볼 수 있게 돼 원하는 각도의 생체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연결 장치 사양이 표준화돼 바이오 관련 실험실에 있는 대부분의 현미경과 결합이 가능하다. 높은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해외에도 특허 출원된 상태이다.

김준기 조교수는 "상용현미경과 결합 가능한 미세내시경 시스템은 시험관에서 세포를 관찰하고 기능을 밝히는 것을 넘어 생물단위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현실화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험동물 체내에서 일어나는 대사 활동, 질환 발생, 회복 과정 등의 각종 생명현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 앞으로 생명과학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로봇산업융합 핵심기술 개발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체내모니터링을 현실화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아 생명광학분야 권위지인 「저널 오브 바이오포토닉스」 최신호에 게재됨과 동시에 표지를 장식했다.

어린이 환자에게 즐거움 주는 디지털 놀이터 '힐링정글' 인기



'힐링정글' 오픈식에서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현대해상 황미은 상무·김동욱 홍보기획팀장(왼쪽 네 번째부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아들을 위해 마련된 디지털 놀이터 '힐링정글'이 1월 16일 오픈했다. '힐링정글'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동물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놀이공간으로 ▲운동량이 적은 아이들이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동작놀이' ▲사물·색·소리 등 인지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인지놀이' ▲정글의 밤을 통해 별자리를 보거나 소원이 적힌 풍등을 날릴 수 있는 '정서케어' 총 3개 파트, 11가지 콘텐츠로 구성됐다. 힐링정글은 현대해상과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이다. 병원을 즐거운 공간으로 변화시켜 어린이 환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치료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 병원에 기증했다.

고태성 어린이병원장은 "힐링정글은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즐길만한 유익한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한 놀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아들의 신체활동과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외과계 중환자 치료 심포지엄



심포지엄에서 중환자·외상외과 홍석경 부교수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4회 외과계 중환자 치료 심포지엄이 1월 26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급성 환자 치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외과뿐만 아니라 중환자 영역에서 마주치는 급성기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료 및 병원 시스템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의사와 간호사, 기타 의료진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급성 환자 치료 시스템 ▲심폐소생술 ▲중환자실에서 마주치는 난제들 ▲중환자 간호의 환자 안전성 구축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모든 세션이 끝난 뒤에는 중환자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표준화 작업인 심망 및 중환자 재활을 위한 워크숍도 열렸다.

제10회 신경외과 포럼



포럼 참석자들이 울산대학교 신경외과 척추 치료의 최신지견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다.

제10회 아산 신경외과 포럼이 1월 25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신경외과는 2009년부터 매년 포럼을 주최해 척추 질환에 대한 수술 기법과 연구 현황 등 최신지견을 공유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소 침습 수술 기법 ▲울산대학교 신경외과 척추 치료의 최신지견 ▲척추 변형 수술의 최신지견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출신들의 척추 수술 기법 소개 등 크게 4가지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신경외과 노성우 교수는 "포럼을 통해 우리 병원 신경외과 척추 분야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예비 의사 114명 서브인턴십 수료



2019년 동계 서브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과 의학연수교육담당교수를 맡고 있는 영상의학과 신지훈 교수(첫째 줄 오른쪽 네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년 동계 서브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이 1월 18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지하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서브인턴십 프로그램은 총 25개 대학

에서 온 1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이번 서브인턴십에서는 21개 진료과에 걸쳐 35개 코스가 개설됐다. 학생들은 각 코스에 선택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배우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 각자 지원한 진료과 실습 외에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감염관리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도 받았다. 우리 병원은 예비 의료인의 진료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1995년 서브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해 매년 동계 1회, 하계 2회 실시하고 있다. 우리 병원의 서브인턴십 프로그램은 타 병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과 고난도 수술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학생들의 진료 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응급환자 지원 위한 직원 헌혈 참여



동관 4층 헌혈실에서 직원들이 응급환자 지원을 위해 헌혈을 하고 있다.

방학기간 중 헌혈 참여인원 감소와 연초 장기이식 환자 증가로 혈액 공급량이 부족했지만, 직원과 내원객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환자 사랑을 실천했다. 1월 28일 동관 4층 헌혈실에서 생체 간이식 환자를 비롯한 응급환자에게 수술 시 부족한 혈액을 지원하기 위해 헌혈이 진행됐다. 이번 헌혈에는 O형 RhD 양성인 직원과 내원객 48명이 신청해 적격 판정을 받은 22명이 최종 참여했다. 모아진 혈액량은 8,720ml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전이 확인된 혈액은 우리 병원 응급환자에게 사용된다. 최미옥 진단검사의학팀장은 “응급환자의 혈액 수급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입직원에게 웰컴키트 선물



이상도 병원장이 신입직원인 해외사업팀 박종혁 사원에게 웰컴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1월 14일 올해 첫 신입 교육 수료식에서 2019년도 관리직 신입직원 22명에게 ‘웰컴키트’가 전달됐다. 웰컴키트는 우리 병원에 갓 들어온 신입직원들에게 주는 환영의 선물이다. 올해 특별히 제작된 웰컴키트에는 ▲신입직원의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웰컴카드 ▲명함 지갑과 명함·사인증 홀더 ▲맞춤형 플래너 ▲고급 필기도구 등 신입직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물품이 들어있다. 오성규 아카데미운영팀장은 “올해부터 일반직 신규직원과 정규직 전환자, 신입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웰컴키트를 선물할 예정이다. 신입직원들이 즐겁고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료정보고도화사업

한달 뒤에 만나게 될 AMIS 3.0, 나는 준비되었나?

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 AMIS 3.0 오픈이 어느덧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실제 시스템 사용자가 현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AMIS 3.0 성공적 오픈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남은 한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AMIS 3.0을 맞이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AMIS 3.0 시스템 사용법은 충분히

AMIS 3.0 시스템을 이루는 기본 UI/UX 및 IMR, ERP등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직종별 교육 동영상은 AMC스마트 아카데미(http://www.amcademy.kr)에서 볼 수 있다. 틈나는 대로 PC와 모바일 등을 이용해 반복학습 하자.

새로운 시스템 변화를 미리미리

AMIS 3.0이 과거 시스템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통합과 표준화라 할 수 있다. 변화된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살펴보면 실제 시스템 사용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변화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경험과 훈련으로 내성을 튼튼히

의료정보고도화사업의 남은 한달 동안에는 모의오픈과 추가 리허설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사업단에서는 각 현업들이 현장에서 시스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관련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데, 이러한 사업진행 간 참여의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면 오픈 전 시스템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오픈 전 부서 및 개인 준비사항은 반드시

본격적인 AMIS 3.0 오픈에 앞서 부서나 개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한다. Set, Mask등 개인설정은 물론 권한관리, 의무기록마감, 공인인증서 갱신 등 관련 협조사항을 잘 살피자.

현장에서의 철저한 이행은 필수

AMIS 2.0에서 AMIS 3.0으로 시스템이 전환되는 과정을 이행이라 하는데, 오픈 전일인 2월 28일부터 오픈 당일인 3월 1일 까지 진행되는 이행과정에서 시스템의 다운 및 복구는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병원운영시스템 각 분야별 상세 이행계획이 현장에 전달될 예정이므로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자료제공 : 의료정보고도화사업단

아산의료원 소식

보령아산병원·보령시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 협약



협약식에서 최중수 보령아산병원장(왼쪽)이 김동일 보령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령아산병원이 1월 22일 보령시와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여건을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령아산병원은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6억원을 포함해 총 37억 5,7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의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응급실 전담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최대 5명 지원 ▲응급실 장비 및 시설 등 환경개선 ▲내년부터 야간 응급수술실 가동 ▲병원 내 닥터헬기장 구급차 이송처치비 지원 ▲소아 전문의 인건비 지원 ▲15병상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전용 병실 설치 및 의료장비 지원 등이다.

임승우·남기호 전문의, 인턴이 뽑은 지도교수상 수상



임승우 응급실장 남기호 진료부장

홍천아산병원 임승우 응급실장과 남기호 진료부장(겸 교육수련부장)이 '인턴이 뽑은 올해의 지도교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인턴 수련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도전문의를

시상함으로써 인턴 수련의 지도와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수상자 선정은 재단 산하 병원 중 인턴 수련을 실시하는 강릉·홍천아산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턴 1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수련 후 제출한 피드백 내용, 의료원 추천 의견 등이 반영됐다. 이승규 의료원장은 지난 1월 22일 홍천아산병원을 방문해 직접 수상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인사

보직임명

혈액내과	교수	이제환	임 : AMIS 3.0 이행상황실장
호흡기내과	교수	홍상범	임 : 시뮬레이션센터소장
흉부외과	부교수	김형렬	임 : 진료지원실 외래담당교수
정형외과	교수	전인호	임 : e-med 담당교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미나	임 : 진단검사의학과 CPI담당교수

- 이상 5명, 2019. 1. 1부

직원들 덕분에 최고 평가 받아

우리 병원이 지난해 시행된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최근 통보받았다. 우리 병원은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인증을 획득했다. 평가위원들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며 우리 병원을 높이 평가했다. 평가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AGS평가팀 이정윤 대리·김고은 주임을 만나보았다. <편집실>



AGS평가팀 이정윤 대리(오른쪽), 김고은 주임.

인증평가 과정에서 맡은 역할은

이정윤 평가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상황실 담당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료 제출 요구시 정확한 서류를 보기 좋은 형태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조율했다.

김고은 현장평가에 동행하며 평가위원이 우리 병원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돕고 직원들이 평가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했다. 평가위원이 어떤 항목을 점검하고 싶다고 하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부서를 최소 동선으로 안내하고 해당 업무의 책임자, 담당자를 찾아 연결했다.

기억에 남는 일은

김고은 신종감염병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냐고 물어본 평가위원이 있었다. 아산벙에 올린다고 답하니 얼마나 조회되는지 보고 싶다고 했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1,000건을 훌쩍 넘자 놀라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어디로 현장평가를 가든 간호·검사 파트를 비롯해 모든 직원이 빈틈이 없었다. 미화원, 보안원 분들도 감염관리 절차 등을 묻는 질문에 완벽하게 답해 '역시 서울아산병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윤 1주기부터 3주기까지 세 번의 평가를 다 경험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수급 자세가 한층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의사가 이 정도 준비 됐으면 병원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알겠다"라고 말한 평가위원이 있었을 정도다. 각종 숙지사항을 완벽히 익힌 전공의 선생님들, 이를 발벗고 나서

지도해준 의국장님들, 평가에 적극 응대한 여러 교수님들 모두 인상적이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정윤 평가 범위가 넓다 보니 제한적인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있어 더욱 완벽을 기해야했다. 모의훈련만 세차례 실시했다. 실제와 동일한 평가 인원 및 일정으로 리허설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싶어 할지 생각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김고은 AGS 상시 평가도 큰 도움이 됐다. 서류 구비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평가보다도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잘 정리되어 있어 수월했다. 평소에 기본 숙지사항도 잘 익힌 덕분에 평가받는 것에 따른 긴장감도 훨씬 적다는 반응이었다.

현장조사를 가깝게 지켜본 소감은

김고은 평가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개인적으로 부담감과 압박감이 컸다. 내가 평가를 받는다면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선 다들 자신감이 가득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되려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너무나 든든했고 감사했다.

이정윤 평가는 우리 모습을 외부의 시선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다. 평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웃음)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같은 직원으로서 자랑스러웠다. 평가를 위한 평가로 생각하지 않고,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

* 병원보는 '사람&이야기'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궁금한 직원, 알리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병원보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수면 중 몸의 변화 확인하는 수면다원검사기

"김 모 씨는 평소 오래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자고 일어나면 늘 머리가 멍했다. 코도 심하게 골아 가족들에게 원성을 듣다가 아내의 권유로 우리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수면다원검사를 처방했다. 검사 결과 진단명은 중증 수면무호흡증. 자는 동안 코에 일정한 압력의 바람을 불어넣어 기도를 열어주는 양압기 치료를 시행했다. 김 씨는 치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코를 골지 않고 숨도 편하게 쉴 수 있어 피로감 없이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특수검사팀 김원태 주임이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위해 환자의 몸에 수면다원검사기의 센서를 부착하고 있다.

수면다원검사기와 양압기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해 저산소혈증을 일으키고 심·뇌혈관질환 등을 유발해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이다. 낮 시간에도 항상 피곤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다. 이때 검사에 쓰이는 의료기기가 수면다원검사기다. 수면다원검사기를 이용하면 코골이나 무호흡증, 이상행동 등 수면 중 발생하는 신체의 생리적인 신호를 동시에 수치로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몸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한 채 검사실에서 하룻밤 취침을 하며 진행된다. 검사자는 운영실에서 밤새 실시간으로 여러 생리적 신호를 모니터링한다. 검사를 마치면 뇌파, 아래턱근전도, 안전도, 심전도, 동맥혈 산소포화도, 복부와 흉부의 호흡운동, 호흡기류, 코골이 등을 확인하고 수면 중 비디오 녹화, 음향녹음 데이터까지 얻을 수 있어 치료방향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증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면 일반적으로 양압적정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양압기는 공기압력을 기도에 불어넣어 목안이 좁아지지 않게 해주고 이 경우 가장 적절한 양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불편과 부작용이 크게 줄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검사할 때엔 일반적인 수면다원검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센서를 부착하는데 호흡기류 센서 대신 양압기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룻밤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디지털화, 소형화로 검사 편의 높아져

우리 병원은 1992년 가을경 수면다원검사실을 열었다. 수면다원검사는 16채널 아날로그 방식으로 밤새도록 종이에 안전도, 뇌파, 턱근전도가 기록되는 방식이었고 1~2시간마다 갈아야 하는 종이나 비디오 테이프가 산처럼 쌓여있었다. 검사자가 지속적으로 종이를 갈며 비디오 테이프를 시간마다 바꾸면서 검사를 진행하여야 했다. 또 부착센서가 커 환자에게 불편감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검사 장비가 디지털화 되어 종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바꾸지않고 컴퓨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센서가 작아지고 간편화되어 훨씬 편안한 느낌을 제공한다. 양압기도 훨씬 소형화되었다. 양압기 마스크의 크기도 매우 작아졌고 코에 접촉되는 면이 훨씬 부드러워져 착용이 용이해졌다. 우리 병원은 검사실 문을 열 당시 1개의 검사실에서 하루 1명만 검사를 하다가 154병동에 2개의 검사실을 증설했고 위치를 지금의 뇌신경 검사실로 옮기면서 3개로 증설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어 최근에는 5개의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당시 1주일에 2~3건에 불과하던 검사 건수가 2008년에는 연간 450여 건으로 증가했고, 현재는 연간 1,2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7월부터는 의료보험 적용 혜택을 받게 돼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병원이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는 2019년 1월 기준 12,300여 대에 이릅니다. '의료기기 클로즈업' 코너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활용사례와 변천사를 소개합니다.

원인이 다양한 손발저림



신경과 임영민 부교수



구름빛

손발저림은 손이나 발에 발생하는 모든 저린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로 저리다, 화끈거린다, 시리다, 아프다, 쭈신다, 마취된 것 같다,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다, 딱딱하다 등 여러가지로 표현된다. 손발저림은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증상으로 원인도 다양하다.

손발저림이 발생하면 환자들은 흔히 혈액순환장애로 생각하고 혈액순환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손발저림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 신경계 장애로 발생한다. 말초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의 감각 증상은 저림 보다는 주로 통증으로 나타나며 추운 날씨에 의해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의 색깔이 하얗게 혹은 자주색으로 변하고 무감각해지는 레이노현상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신경시스템은 해부학적으로 크게 2가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되어 있다. 말초신경은 거미줄처럼 신체 구석구석,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퍼져 있는 신경으로 말초신경병은 저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해주는 구조물이다. 손발저림의 원인은 문제가 되는 신체부위에 따라 말초신경질환, 척추질환(신경뿌리압박), 중추신경질환으로 나눌 수 있으며,그 외 심리적인 요인도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말초신경병은 손발저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손목굴증후군, 당뇨병, 요독성신경병, 약물에 의한 신경병, 알코올성신경병, 영양부족에 의한 신경병, 갑상샘기능저하로 인한 신경병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손목굴증후군으로 1, 2, 3번째 손가락 끝의 저림으로 시작해 심해질 경우 아래 팔은 물론 어깨까지 통증이 방사되기도 한다. 주로 밤에 심해지며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임신부, 류마티스관절염·갑상선기능저하증·당뇨병·암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투석을 하고 있는 경우에 더 흔히 발생한다. 손목굴증후군 외에도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는 환자나 신장 투석 환자에서도 손발저림이 자주 발생하는데 대개는 양손, 양발에 장갑이나 양말을 신은 것처럼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는 다발신경병 형태로 발생한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처럼 약물에 의한 손발저림이 발생하기도 하고, 알코올이나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말초신경질환은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라는 전기생리검사를 통해 진단을 한다.

신경뿌리병은 흔히 목 디스크, 허리디스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척추에 있는 디스크가 원래 위치에서 빠져나와 추간공을 지나가는 신경뿌리를 압박하여 발생한다. 경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손저림 외에도 어깨통증, 뒷목의 뻣뻣함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내려오는 방사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척추질환에 의한 신경뿌리병은 척추 CT 또는 MRI 등의 영상 검사와 전기생리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중추신경질환은 뇌졸중이 대표적인 질환인데, 뇌졸중이라고 하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들을 생각하기 쉽다. 물론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이기도 하지만 뇌졸중이 발생하는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만 발생하기도 하고 팔다리 또는 손저림만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손발저림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고 굉장히 갑자기 발생했다면 뇌졸중 같은 뇌혈관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말초신경병과 달리 뇌졸중에 의한 저림증은 갑자기 발생하며 주로 편측으로 나타나고 두통, 어지러움, 마비, 발음장애, 언어장애 등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

손발저림이 있다면 이처럼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전문분야 의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가 나중에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도 달라지므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인에 대한 감별 및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젊은 임상 의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기대하며



구름빛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 병리과 교수

“임상의랑 의사의 차이점이 뭐가요? 임상이가 무슨 뜻인지 잘 와 닿지 않네요?” 이것은 어느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질문이다. 누군가가 이에 대해 “임상이란 것은 환자를 직접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의란 의사가 환자를 보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환자를 직접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라고 답했다. 같은 포털 사이트의 국어사전에서는 임상(臨床)이란 단어를 ‘환자를 진료하거나 의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병상에 임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면 임상의사도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마지막 문장은 부적절하다고 느껴진다.

의학 연구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요즘은 전통적인 단일 전공 분야의 연구로는 분류가 어려운 융합 및 다학제 연구 형태로 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 R&D 정책 경향은 연구과제 기획 및 연구예산 배정에 나타나는데, 최근 두드러지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임상의사의 연구를 장려해 임상과학자를 육성하고 실용화 연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진료 현장에서 파악이 가능한 임상적 미충족 수요 해결의 사회적 중요성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장기적인 국가 의과학 R&D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진 임상과학자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임상과학자 연구역량강화사업’을 기획 공모했으며, 그 결과 우리 병원을 포함해 3개 기관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우리 병원이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우수한 실력을 갖춘 젊은 임상사들과 이들의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구축되어 있는 연구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캠퍼스 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많은 전문 분야의 PhD 교수진과 영상 및 다양한 최신 분석 기법을 지원할 수 있는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내 코어랩들의 존재가 젊은 임상사들이 연구자로서 성숙해 나가는 데 큰 기반이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병원에서는 9명의 젊고 유능한 신진 임상사들이 이 프로그램 내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정밀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난치성질환 해결을 위한 신약 개발 및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의리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과제에 참여하는 임상사들은 김범준(내분비내과), 김성훈(마취통증의학과), 김지선(유방외과), 신성(신·췌장이식외과), 유창훈(중양내과), 이사민(심장내과), 이승주(신경외과), 이은재(신경과), 홍석찬(류마티스내과) 교수들이다. 이들과 만나서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은 내가 병원 생활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끼는 시간 가운데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가 신진 임상과학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의료의 기준을 바꾸거나 사회적·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과학자 연구역량강화사업의 화두인 실용화와 관련해 우수한 기술의 개발과 확립은 일생을 두고 개인과 기관 R&D 선순환 구조 확립의 핵심이다. 국가적으로도 병원 중심의 R&D 산출물 실용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제안을 기반으로 국회에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의료기술협력단’을 병원에 독자적으로 둘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맞물려 신진 임상과학자들이 중견과학자로 성공적으로 발돋움하면서 기술 완성도를 높여갈 경우 국가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 병원에는 다양한 R&D 기술 기반의 창업을 시행해 또 다른 연구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는 선배 교수들이 생겨나고 있다.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R&D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과 연구비를 항상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많은 연구자가 좌절하거나 도태되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실현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미 작은 회사의 CEO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내가 경험한 우리 병원의 신진 임상과학자들은 모두 훌륭한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의 미래 R&D를 두고두고 꽃피우고 선도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 김종재 교수는 2011년부터 우리 병원 병리과에 재직 중이다. 2015년부터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 병원 기반 R&D 활성화 및 실용화를 위한 과제들을 수행 중이며, 2016년도부터는 임상과학자 연구역량강화사업의 주관 책임자로 신진 임상과학자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 연구자로서는 조산과 관련된 태반의 병리 현상 규명에 매진해 왔다.

※ 우리 병원에는 환자 치료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임상(臨床)의사가 많다. 병원보에서는 ‘우리는 연구중’ 코너를 통해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기획한 ‘임상과학자 연구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원받고 있는 임상사들의 연구 내용 및 계획을 소개한다.

어둠 속에 빛이 보일 때



20여년 만에 보는 낮선 빛이었다. 인공망막이식술을 받은 직후 김경란(59) 씨는 암흑 속에 빛이 쏟아지자 눈물부터 흘렸다. 다섯 살 적 모습이 마지막 기억으로 남은 딸의 얼굴을 드디어 볼 수 있으리란 기대에 들떴다. 하지만 눈 앞의 딸은 흑백의 빛으로 아른댈 뿐이었다. 그녀는 초조해졌다.

예고된 그날이 왔다

초등학교 시절 야맹증으로 안과를 찾았을 때 이미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다. 인젠가 설명할 거라는 것도 그때 들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전국의 안과를 다녔지만 치료 방법은 없었다. 그나마 밤에 조심하고 작은 글씨 보는 것만 포기하면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다. 평생 두 눈이 되어주겠다는 남편을 만났다. 장애가 자녀에게 유전될까 봐 자녀 계획도 세우지 않았던 부부에게 선물처럼 건강한 딸이 찾아왔다. 평탄한 일상에 장애는 그저 작은 걸림돌일 뿐이었다.

온 가족이 놀이 공원에 놀러 갔을 때였다. 놀이기구를 타러 간 딸과 남편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눈 앞이 흐려지면서 사람들의 다리부터 걸음걸이, 형태가 가물거렸다. 오래 전부터 예고된 불행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러면서도 그 순간의 두려움은 감당하기 힘들었다.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때 여기저기 테러가 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다. 설악산 안개 속의 바위에서 잊지 못할 광경을 눈과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한달 뒤, 완전히 시각을 잃었다. 암흑 속에 갇힌 것이다.

시각 장애인 친구들 사이에서 전맹은 경란 씨가 유일했다. 빛 한 점 보이지 않아 잠깐만 방심해도 부딪히고 다쳤다. 무심히 넘길만한 부분까지 늘 의심하며 예민했다. 밖에 나가면 암흑 속에 겁부터 먹었다. 그때마다 비참한 기분을 떼어내기 힘들었다.

상상 못한 행운이 내게로

어느 날 백내장 치료로 만나던 안과 김윤전 조교수에게 연락이 왔다. 우리나라 망막 분야의 권위자인 안과 윤영희 교수가 인공망막이식수술을 도입하는데 수술 대상자 후보로 올랐다는 것이다. 인공망막이식수술은 외부의 영상을 전기신호로 바꿔 시력이 없는 환자의 눈 속 망막을 자극하며 인공적인 시력을 만들어 줄 수 있었다. 억 단위의 수술비를 지원받는 행운이 경란 씨에게 찾아왔다. 인공망막이식술에 필요한 검사 진행 결과, 망막과 시신경이 오랜 시간 잠든 상태였다. 시력 향상이 아닌 0에서 1을 만드는 어려운 치료 과정이었다. 친숙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목표로 삼았다. 그런데 수술을 며칠 앞두고 국내 첫 인공망막이식수술 환자가 20년 만에 딸의 얼굴을 보게 됐다며 감격하는 뉴스를 듣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경란 씨는 가슴이 뛰었다. 자신도 모르게 결과를 기대하며 수술대에 올랐다. 그리고 작고 흔들리는 빛을 얻었다.

실망하기엔 아직

수술만 하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경란 씨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최고의 의료진과 최신 기술로도 자신의 운명은 바꿀 수 없었던 걸까. 체념한 듯 특수 안경을 쓰지않고 재활 훈련도 등한시하자 윤영희 교수는 충고했다. "솔하게 보고 만지면서 모든 감각으로 익혀야만 보이는 겁니다. 실망만 할거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가 사용하게 될 '사이버 시력' 방식은 일상의 사물과 공간이 어떤 시각 패턴으로 인식되는지 찾는 훈련이 필요했다. 운명을 바꾸려면 자신의 의지가 먼저여야 했다.

초점을 맞춰 빛을 추적하는 훈련을 통해 그녀만의 보는 방법을 터득해갔다. 온 몸의 감각을 동원하다 보면 2시간의 재활 훈련 후 녹초가 되었다. 재활치료사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어린이처럼 하나하나 배웠고 수험생처럼 열심히 연습했다. 차츰 집안의 주방 용기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차가 지나가는 것과 눈 앞의 물체를 확인하면서 부딪히는 일도 줄었다. 또 횡단보도의 하얀 줄을 감지하고 직진하는 연습을 거치며 익숙한 길은 혼자 외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병원 직원텔레크실에서 근무하는 그녀는 지하철에서 병원까지, 병원 로비에서 근무지까지 어렵게나마 혼자 걷기도 했다. 윤 교수의 칭찬이 이어졌다. "이제는 잘하네요! 처음에 안 되던 것들이 천천히 좋아지고 있어요." 해를 넘기며 경란 씨의 시각 능력은 현저히 향상되었다. 수술의 기회가 없었다면, 미리 단념하고 포기했다면 오지 않았을 변화와 행복이었다.

세상에 손 뻗을 용기

마트에 장을 보러 간 날이었다. 남편이 잠시 카트를 가지러 간 사이, 경란 씨의 눈에 작은 빛이 비쳤다. '방금 뭐였지?' 호기심이 들었다. 조심히 빛을 향해 다가가 만져보았다. 그동안 터득한 방법으로 빛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굉장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제껏 낮선 곳에서 마음대로 움직여 본 적 없던 그녀가 스스로 세상을 향해 한발 내딛은 것이다. 매일 조금씩 더 보게 되리란 희망은 벅찬 눈물이 되어 흘렸다. 보고 만지고 걸을 수 있는 용기는 이미 그녀에게 충분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인생 길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용혜원님의 시 「동행」의 한 구절입니다. 이곳은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곳, 사랑시(市) 행복구(區) 동행동(洞) AMC 입니다. 이 곳에서는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동고동락하는 AMC 가족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 되어

영상의학팀 강형욱 차장



◀ 1992년 합창부 공연 당시. 셋째 줄 왼쪽 첫 번째가 강형욱 차장.



▲ 서울아산병원 7주년 기념 부서별 구기대회 결승전 후 기념촬영. 첫째 줄 오른쪽 첫 번째가 강형욱 차장.



◀ 2002년 일본 연수 중에 새로운 장비를 참관하며.

1988년 10월은 내 인생의 변화를 앞두고 참 설레던 나날이었다. “강 선생, 내가 새로 생기는 병원으로 가게 됐어.” 어느 날 성애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조경식 교수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현대에서 설립하는 1,000명상 규모의 신생 병원이라며 나에게도 지원해보라고 했다. 갑작스러웠지만 ‘큰 병원에서 일하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을 기다리는 사이,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가 벌써 서른한 살 청년이 되었으니 서울아산병원도 올해 서른 살이구나 싶다.

첫 출근한 1989년 2월 15일은 서관 공사가 채 마무리되기 전이었다. 매일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고 직접 나르느라 바빴다. 개원 후 환자 업무를 시작하자 열대여섯 명의 방사선사로는 일손이 부족했다. 당직 날이면 30시간 근무를 이어갔다. 그렇다고 일반 한 것은 아니었다. 개원한 해 여름, 현대 그룹 직원들의 수영 대회에 출전했다. 아산재단 소속으로 서대철 교수, 신대식 실장, 신옥란 직원과 혼계영 팀을 이뤘다. 계열사 직원들조차 아산재단의 존재를 모르던 시기였는데 우리는 처녀 출전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현대 사우의 밤 행사엔 8명의 복사중창단을 만들어 노래했다. 우리 병원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990년 9월 11일. 세차게 내리는 비에 병원 지하부터 물이 차기 시작해 지하주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 차는 물론, 혈액원에 가야 할 차량까지 모두 물에 잠겼다. 88대로에 무사히 차를 옮겨둔 나는 그날 밤 동부혈액원을 왕복하며 환자들의 수혈을 도왔다. 또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자 환자를 매트리스에 눕혀 직원들과 비상계단으로 옮겼다. 지하주차장에서 물에 잠겨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를 하나씩 밀고 올라오기도 했다. 내 체력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방사선사로 엑스레이만 다루던 나는 체외충격파쇄석기 업무를 처음 맡게 되었다. 우리 병원은 타격이 세고 효율 높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환자들의 결석을 분쇄하며 비뇨기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폭넓게 교류할 수 있었고 직접 관련 논문을 쓰기도 했다. 우리 병원이라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자 기회였다.

어느 날 대뜸 한 환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황해 하는 나에게 환자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여덟 번에 걸쳐 아무리 꺼려고 해도 안 되던 걸 여기 와서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얼마나 말 못할 고통과 사연이 많았으면 이렇게 고마워할까 싶었다. 환자들을 보다 진지하게 살피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환자들의 필름을 전산화해 보관하는 자료관리실에서 일할 때였다. 예상치 못한 애로 사항이 있었다. 환자들의 필름이 서가에도 없고 외래에도 불출 안 된 상태로 짐계되는 일이 빈번했다. 필름이 필요한 환자들의 제촉은 계속 되는데 행방을 알 수 없으니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컸다. 사라진 필름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 교수 방이나 인턴의 손에서 나왔다. 의료진이 시간에 쫓겨 바코딩을 하지 않고 가져갔다가 반납을 잊은 것이다. 나는 의국장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아예 의료진을 따라가서 필름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오기도 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 직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금방 엉망이 된다는 걸 실감했다. 이후 수개월에 걸쳐 필름을 디지털 작업하면서 자료관리실 업무는 큰 변화를 맞았다.



▲ 영상의학팀 이용문 전 팀장(왼쪽)과 함께.

1999년 엔 정읍아산병원에서 근무했다. 다소 어수선했던 영상의학팀 시스템을 정비하고 근무시간과 임금체계를 확실히 하는데 주력했다. 지역 병원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보람을 느끼며 서울로 돌아오자 발탁 승진의 기쁜 소식이 기다렸다.

병원 초창기부터 나는 각종 구기대회나 체육대회에서 응원단장을 도맡아 병원 직원들과 두루 유대관계를 맺어왔다.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친근하게 농담을 주고 받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순간들이 병원 생활의 기쁨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잘 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면서 말이다.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준 30년의 병원 생활은 늘 든든했다. 나라는 사람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준 병원에 고마움을 전하며 마지막 출근 날까지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그리 옛날 일은 아닌데 정확히 언제였는지 가늠 못하는 기억들,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낡고 녹슨 물건 그 속에 새겨져 있는 이야기는 오롯이 병원의 역사가 됩니다. '나의 역사, 병원의 역사' 코너는 직원 개개인이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나 병원의 모습을 추억하며 병원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코너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오스 의료봉사에서 찾은 행복

어린이병원간호팀 김나연 주임



처음 의료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tvN '꽃보다 청춘'의 라오스 편을 보고 한 번쯤 라오스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또 의료봉사는 간호사가 되면 꼭 해보고 싶었던 다짐이자 일상에 지쳐있던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결과적으로 라오스 의료봉사에 참여해 해외 의료봉사의 체계와 현지 상황, 봉사자의 마음가짐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작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라오스 우돔싸이의 한 중학교에서 예진과 진료, 검사를 위해 각 교실을 소아과, 내과, 물리치료, 약국, 영양의학과, 외과, 이비인후과, 초음파, 통증의학과로 나누어 체계적인 봉사를 진행했다. 교수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선교사님, 현지 중학교 선생님 등으로 구성된 우리 의료봉사단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진과 진료, 검사를 시작했다. 난 외과간호2팀 김경희 선생님과 같이 예진을 맡아 3일간 9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각 과로 분류하는 일을 했다. 예진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옴 환자 조기 발견'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라오스의 가정환경과 의료체계를 알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라오스 주민들과 우리 직원들, 학교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기 발견해 치료와 약 처방을 하는 소위 '패스트 트랙'은 많은 사람의 노력 끝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뤄졌다. 고혈압인지 모르고 두통에 시달리고 있던 50대 남성, 3일 전부터 복통이 있었지만 병원을 갈 수 없어 먼 길을 걸어온 20대 여성(진료 결과 충수염이었다), 만 1세가 넘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기 등 장

기적이거나 신속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각 과에는 몰려드는 환자들로 복새통을 이뤘지만 꼼꼼하고 정확하게 환자들을 치료했다. 생활습관도 교육했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의 봉사일 수 있지만 라오스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과 치료방법을 알고 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건강검진 날이던 마지막 날, 이틀간 스파르타식으로 익힌 라오스어로 학생들에게 이름, 나이 등을 물어본 후 진료실로 보낼 수 있었다. 의자에 앉자마자 "아프지 않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어느 나라든 아이들은 똑같이 순수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낯선 곳의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맡고 있는 소아과 아이들이 생각났고 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간호하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초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매일 저녁마다 봉사 때 좋았던 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토론했고 진료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우리 병원으로 초청해 치료하는 계획도 세웠다. 지극히 평범한 내가 멋진 의료봉사단을 만나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에 참여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봉사를 준비하는 기간과 봉사를 하는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의료봉사가 끝난 지금 라오스 사람들로부터 더 큰 행복을 전 달받은 것 같아 다시 한번 감사하다.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많은 분이 의료봉사를 통해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

AMC 루키

내과간호팀 정승윤 사원입니다



※ 병원보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AMC 루키 코너를 진행합니다.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고 싶은 동료들의 추천 혹은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의 업무는 웨담도 질환 환자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웨담도는 웨장과 담낭, 담도의 줄임말로 간과 웨장에서 생산된 소화 효소가 배출되는 기관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신체기관이라서 치료와 수술을 불안해하는 환자가 많은데 웃음으로 다가가 불안감을 덜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어느 날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가 오늘은 행복한 날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전에 침대에 누워서 CT검사를 받았던 입원환자였는데 건강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버티고 노력한 결과 걸어서 검사를 받으러 올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일상은 입사 전부터 카카오프렌즈의 대표 캐릭터인 '라이언'에게 푹 빠져있는데요(웃음). 시간 날 때마다 카카오프렌즈샵을 찾아가 라이언 인형을 구경하거나 구입해 집에 전시하는 게 취미입니다. 라이언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미소를 띠게 됩니다.

올해 계획은 무엇보다 다이어트입니다. 평소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만큼 지방도 함께 쌓였다는 사실을 최근 깨달았습니다(웃음). 꾸준한 운동은 물론 식단 조절을 통해 쌓인 지방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83병동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묵묵히 기다려주셔서 매번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거창하고 멋있는 미래를 꿈꾸기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많은 사람에게 웃음과 밝은 기운을 전해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 달의 레시피

설날 남은 떡국 떡 활용하기

봉골레 떡 파스타



예로부터 떡국 떡 모양은 화폐를 의미해서 올 한해도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날에 떡국을 먹었다고 한다. 설날 먹다 남은 떡과 2월부터 제철인 바지락을 이용한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인상적인 봉골레 떡 파스타를 만들어보자. *봉골레(wongole)란 조개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이다.

봉골레 떡 파스타 (4인분)
열량 1,829kcal, 탄수화물 258g,
단백질 67g, 지방 55g

재료 바지락 400g, 떡국 떡 450g, 올리브유 1/2종이컵, 화이트와인 1/4종이컵(또는 맛술), 후추 약간, 소금 약간, 다진 마늘 2작은 스푼, 양송이버섯 2개, 양파 1개, 파프리카 1개, 깻잎 4장, 청양고추 1/4개(선택)



- 1. 떡국 떡을 찬물에 담가놓고 양송이버섯, 양파, 파프리카, 깻잎을 채 썰어 준비한다.
- 2.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과 채소를 볶는다.
- 3. 바지락과 화이트와인(또는 맛술)을 볶아주고 입이 벌어지는 순간 떡을 넣어 함께 볶는다.
- 4.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다. 매콤한 맛을 원한다면 청양고추를 약간 넣어준다.

떡과 바지락의 영양 정보 가래떡의 주재료인 멥쌀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을 공급하며,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 대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 좋다. 봄이 오면 해수 중의 먹이를 왕성하게 섭취해 살이 차기 시작하는 바지락은 2~4월이 제철이다. 1회 분량(80g)을 섭취하면 하루 철 권장량의 50%(20~65세 평균)를 섭취할 수 있다. 철이 부족하기 쉬운 가임기 여성들과 성장기 청소년들이 빈혈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섭취하면 좋다. 또한 바지락은 호박산과 글루탐산을 함유하고 있어 조리 시 감칠맛을 낸다.

※ 자료 제공: 영양팀 김준경 사원

어떤 정글도 우리가 함께라면

내과간호1팀 이지수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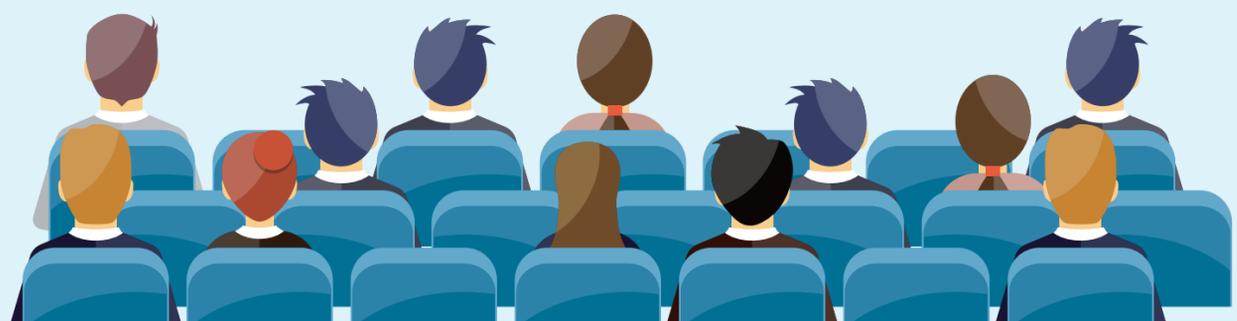


긴급진료실에서 근무하던 때였다. 나이트번 간호사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라운딩을 위해 마지막으로 추가처방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제 시간 안에 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검사와 투약 처방이 나 있었다. 환자를 먼저 살펴야겠다는 생각으로 라운딩을 하며 활력징후를 측정했다. 미소 짓는 표정을 보이며 애썼지만 머릿속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로 복잡했다. 차례차례 환자를 보고 마지막으로 다발성골수종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오전 중 시행할 검사에 대해 설명했다. 환자는 질문이 많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던 나는 그만 통명스럽게 대하고 말았다. 환자는 화를 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질문에 답해드렸지만 화가 난 보호자의 못마땅한 마음은 수간호사 선생님의 귀에 들어갔다. 수간호사 선생님은 나를 면담실로 불렀다. 자초지종을 들은 수간호사 선생님은 소진된 환자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고, 간호사로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해주며 잘 타일렀다. 그리고 힘든 부분을 공감해주었다. 면담실을 나오며 내가 얼마나 기계처럼 일하고 있었는지 생각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나이트게일 선서를 하며 내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나의 간호는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이 맴돌았다. 다시 환자에게 가서 응서를 구했다. 환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도 이렇게 아프니 힘들고 예민해서 그랬어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치료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네요. 선생님도 참 다정다감하게 잘해주셨는데 미안해요"라며 내 손을 꼭 잡아줬다. 왈칵 눈물이 나올 뻔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영화 '정글'을 보면 해리포터의 주인공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그는 한 여행 가이드에게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정글에 들어가 원시 부족이 사는 마을을 탐험해보자는 제안을 받는다. 남들과 다른 모험을 추구하였던 그는 그곳에서 만난 두 명의 친구들과 탐험을 시작한다. 탐험은 순탄치 않았다. 결국 친구 한 명이 낙오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다니엘 래드클리

프와 나머지 한 친구는 서로 다른 길을 걷다 조난을 당해 서로를 잃어버린다.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홀로 길을 헤쳐나가며 이해하지 못했던 친구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을 흘린다. 이 영화를 보며 병원에서의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누군가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나만 생각하거나 남의 시선만 의식하기보다는 한번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격려해준다면 다같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분명 그것이 환자의 안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자간호사로서 병원에서 근무한 지 만 5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겪었던 실수, 받았던 칭찬들이 내 마음속에 머무르고 있다. 그 경험은 앞으로 간호를 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 실수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내가 근무중인 173병동에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테이블에 모여 앉아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한다. 이처럼 서로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우리의 조직문화가 더욱 잘 자리잡길 바라며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적혀있는 한 구절로 글을 마친다. '진심으로 찬사를 건네고 야김없이 칭찬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한 칭찬을 마음 속 깊이 소중한 간직하고 평생 되풀이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뒤에도 오랫동안 두고두고 말이다.'



정글
 감독 : 그렉 맥린
 출연 : 다니엘 래드클리프(요시 긴스버그), 토마스 크레취만(칼), 알렉스 라셀(케빈)
 장르 : 액션, 모험, 드라마, 스릴러
 개봉 : 2018. 5. 31



나의 취미생활

무궁무진한 가족의 변신 가족공예



건진운영팀 강지혜 주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원래 공인형 만들기나 요리처럼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취미생활을 알아보던 중 가족공예를 알게 됐는데, 클러치백 같은 작은 가방을 직접 디자인해 만들 수 있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3개월 정도 배웠고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병원 동료와 함께 공방에서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작업 때 어려운 점은 체력과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공예품 하나를 만드는 데 디자인부터 도색까지 하루 3시간 정도씩 걸립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칼로 자르는 작업부터 쉽지 않아 근육통이 생기기도 했지만 차차 기술이 생기자 보니 이제는 편찮아졌어요(웃음). 한 번 바느질한 가족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족공예 덕분에 집중력이 높아진 것 같아요(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공예품은 똑같이 디자인한 클러치백을 두 개 만들어서 시어머니와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는데 반응이 좋아서 뿌듯했습니다. 보통 공예품을 만들다 보면 애착이 많이 생겨 제가 직접 사용하곤 하는데 종종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가족공예의 매력은 활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가족을 고르고, 바느질을 하고, 색을 칠하냐에 따라 가방, 열쇠고리, 지갑 등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크기나 색도 개인 취향에 맞출 수 있어요(웃음). 또 가방 하나를 만드는 데 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서 적은 비용으로 기대 이상의 높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에서 주는 가족을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신설동 가족시장 같은 곳에서 원하는 가족을 저렴하게 구입해 독창적인 공예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나렌스 간호사가 담당한 환자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환자의 장 운동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던 나렌스 간호사는 교과서에서 배운 'fart'를 쓸까 고민하다가 "Gas out?"이라고 물었다. 이에 외국인 환자는 "What?"하며 실소를 터뜨렸다. 과연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

가스 나왔는지 물어볼 때



Did you fart?
Gas out?



Do you have gas?
Have you had gas?

방귀만큼이나 제대로 된 표현을 몰라서 외국인을 당황케 하는 표현이 "소변 보셨어요?"와 "대변 보셨어요?"이다. "Did you pee?" "Did you poop?"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올바른 표현은 "Have you peed?" "Have you pooped?"이다. 하지만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따로 있다.

소변, 대변 봤는지 물어볼 때



Did you pee?
Did you poop?



Have you gone number one?
(Have you peed?)
Have you gone number two?
(Have you pooped?)

No1은 자주 가는 소변, No2는 대변을 지칭하는 미국식 구어체다. 실제로 한 간호사가 병동에 입원한 미국 환자에게 이 표현을 썼더니 그 환자가 활짝 웃으며 말이 잘 통한다고 이 간호사만 찾았다는 후문이다.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가

※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영어 표현 중에 정작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를 통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공유합니다.





❁ 모처럼 가족·친척들과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설 연휴 때는 자칫 과식하기 쉽다. 설음식은 대부분 열량이 높아 이것저것 먹다 보면 금세 하루 기준 열량을 초과하기 마련. 대표적인 설음식의 열량은 얼마나 될까? 열량이 높은 설음식(100g 기준)을 알아본다. <편집실>

1 유과



[424kcal / 100g]

찰쌀, 기름, 조청이나 물엿, 고물이 합쳐져 만들어진 유과가 1위를 차지했다. 1개는 30~40Kcal이지만 금방 여러 개를 먹을 수 있으니 유의하자.

2 약과



[399kcal / 100g]

달짝지근한 설 대표 간식 약과. 2~3개 짬은 약과겠지 생각하고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밥 한 공기의 열량을 훌쩍 넘길 수 있으니 1~2개만 먹는 것이 좋다.

3 동그랑땡



[206kcal / 100g]

온 가족이 한입에 즐길 수 있는 동그랑땡은 1개에 30Kcal 정도 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설음식인 만큼 반죽 시 채소와 두부를 많이 넣는 것을 추천한다.

4 소갈비찜



[198kcal / 100g]

소갈비찜은 중간접시(250g) 기준으로 495Kcal, 소갈비는 1대당 70~80Kcal이다. 조리할 때 설탕 대신 천연감미료를 사용하면 열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5 꼬치전



[182kcal / 100g]

햄, 게맛살, 채소 등을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쏠쏠한 꼬치전. 3개를 먹었다면 582Kcal을 섭취한 것이다. 전 중에 열량이 높은 편이니 기름과 튀김옷을 적게 사용해 조리하자.

6 동태전



[179kcal / 100g]

담백한 맛이 일품인 동태전은 3조각 기준으로 134Kcal이다. 채소로 만든 전 다음으로 열량이 높지 않지만 기름기가 있어 키친타월로 제거한 뒤 먹는 것이 좋다.

7 잡채



[136kcal / 100g]

설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잡채는 1/2 중간접시(75g) 기준으로 102kcal이다. 열량을 낮추고 싶다면 당면 대신 곤약이나 콩나물을 활용해 조리하는 방법이 있다.

8 떡국



[89kcal / 100g]

설날의 대표 음식 떡국은 1/2그릇(400g) 기준으로 356Kcal이다. 밥 한 공기가 300kcal인 점을 감안하면 열량이 적지 않은 편이다. 만두를 넣어 먹으면 1개당 100kcal가 추가된다.

9 식혜



[87kcal / 100g]

기름진 설음식을 먹은 뒤 후식으로 제격인 식혜. 달콤한 맛 때문에 여러 번 마시게 되는데 당분이 높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1컵(150ml) 기준으로 130Kcal이다.

설음식 열량 낮추는 조리방법

- 전은 두부나 버섯, 채소를 많이 넣어 조리한다.
- 육류는 볶음이나 튀김보다 굵거나 삶아서 조리하고 살코기 위주로 조리한다.
- 전이나 부침은 키친타월을 이용해 기름을 제거한다.
- 전을 다시 데울 때는 프라이팬보다 전자레인지나 오븐을 사용해 기름 없이 데운다.
- 나물은 기름과 양념을 적게 사용하고 볶음 대신 무침으로 조리한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주얼 다이어트